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정진성**

본 연구논문은 IMF 경제위기가 우리의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제위기가 가져온 생활수준의 변화와 경제적 고통의 내용과 함께 가족간의 접촉의 정도나 가족폭력, 가족해체 등 가족관계에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친족·친지와 주고받은 경제적 도움의 정도나 소비지출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완만한 사회변화 과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가족의 특성 및 가족생활의 단면을 살펴 보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가 장차 성별관계에 미칠 영향을 여성들의 취업동기의 강화나 역할행동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경제위기는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실업이 생긴 가족들은 가족관계에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부부 간의 접촉빈도가 높아졌다. 부부간의 폭력이나 해체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자녀에 대한 폭력이 이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사회적 보장제도나 친구에 비해서 친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지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친정이 도움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존의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들과 다소 다른 것들이므로, 우리사회를 해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소비 변화를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문화비용과, 병원비, 그리고 사교육비가 지출의 신축성을 가진 부분인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여성들의 취업에서 경제적 동기가 강화되는 측면과 함께 역할행동의 변화가능성도 일부 제시되었다.

핵심단어: 경제위기, 가족관계, 친족간 거리

* 본 연구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서론

1. 문제제기

구조조정을 더 강한 강도로 진행시키지 않으면 다시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해 간 우리 경제는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2의 경제위기가 도래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위 IMF 경제위기는 단순한 경기후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실 IMF 경제위기 당시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대량실업 사태는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IMF 사태가 경제에 준 충격은 향후 노동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고실업과 노동불안정은 이제 한국인의 삶 깊숙히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경제위기와 가족문제를 검토한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당장의 문제에 대한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계층을 어떻게 지원하여 가족적 삶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다. 경제위기가 던진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우선적으로 중요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태도는 일면 수긍이 간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우리 가족에 던진 충격을 헤쳐 나오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경제위기가 우리의 삶에 던진 파장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해진 계층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 단기적인 안목에서가 아니라 향후 가족과 여성의 삶에 작용하는 경제위기의 영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면 실업과 수입의 감소, 그것들에 대한 불안이 가족생활의 기초를 흔들어 놓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여, 심한 경우 가족 해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가족은 그 독특한 응집력으로 인해 위기시에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는 추측이나 기대 역시 무성하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먼저 경제위기 이후 우리 가족의 결속력과 상호작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 보고

자 한다.

다른 한편 경제위기는 평상시 잘 드러나지 않던 가족적 삶의 여러 단면들을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위기의 상황에서는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가족생활의 우선순위가 표출될 수 있으며,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서적·경제적 자원의 소재를 알 수 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가족생활의 이러한 단면들을 평가해 보는 것은 우리의 가족생활의 특성을 규명하여 우리 가족의 대처능력이나 취약점을 지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경제위기에 비로소 드러나는 한국 가족의 이러한 단면들은 한국 가족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고유한 역동을 고찰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경제위기는 통상 여성들의 취업을 고무하는 효과를 지니며 이는 다시 성별관계를 재편하는 계기로 작동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선례들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경제위기가 성별관계를 재편하는 데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가족의 삶과 여성들의 생활상의 변화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적인 구도(임금벌이자 남편-가정주부 여성의 성분업 구도)가 80-90년대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의 경제위기로 인해 이 구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질문은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가족의 삶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적잖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은 아직까지는 경제위기가 발발한 시점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가시적인 변화를 포착하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는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이 있음에 주목하면서 성별관계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는 무엇이며(특히 가족해체의 요인), 경제위기로 인해 노출된 우리 가족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경제위기가 기존의 성별관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경제위기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활동 상태와 복지욕구,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조사자료는 가족 중 실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응답자의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여부, 주관적 계층의식 및 실제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복지 욕구와 의식에 어떠한 차이와 변화가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조사 자체는 현재 시점의 실태와 의식을 조사할 뿐 종단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조사이므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언론기사들을 참조한다.

2. 이론적 논의

경제위기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다룬 선행 연구들의 경향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경제위기를 실업이라는 가족생활사적 사건으로 접근하면서 실업의 발생이 실업 당사자 또는 가족전체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오는지를 평가하는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위기(또는 불황)의 국면에서 남녀관계가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주목하는 보다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접근방법이다. 전자는 경제위기를 실업가족이 늘어나는 문제로 보고 실업이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주로 분석한다. 반면 후자는 주로 경제적 불황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취업압력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남녀관계의 변화를 통해 가족적 삶의 변화를 분석한다. 다른 한편 경제위기는 산업화라는 큰 틀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다. 경제위기는 전반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화의 고도화가 초래하는 가족의 변화라는 테마는 경제위기와 가족적 삶의 변화를 검토하는 논의의 기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세 축으로 기존연구들의 연구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화와 함께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를 본다.

1) 산업화와 가족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

가족이데올로기, 종교, 문화등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족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산업화라는 데는 광범위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관한 구드(Goode, 1963)의 고전적인 논의 이래, 산업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가져오는 가족의 여러 측면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산업화가 가족형태와 가족의 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가 산업화와 더불어 광범위하게 변화되며, 그와 함께 가족의 중심이 이동하고 가족생활의 기능이 변화한다는 점이 일찍부터 지적되었다(Laslett, 1965; Aries, 1960 등). 또한 산업화는

친족과의 거리를 넓히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되어 왔으나, (Goode, 1963 등) 문화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게 이루어져, 서구사회에 비해 동양사회에서 비교적 친족의 중요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도 논의되었다.(일본의 경우, 利谷, 1987)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핵가족화를 넘어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이 새로운 논의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화 초기 가족의 문제가 주로 가혹한 노동의 문제, 빈곤 문제의 성격으로 나타났으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해체가 중요한 가족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飯田, 1986: 202). 즉, 주로 빈곤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가족문제가 빈곤층 뿐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별거, 이혼, 사망, 재난, 혼외의 남녀 결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편부모, 혼외자녀가 증가일로에 있는데 청소년의 일탈, 노후의 생활불안, 자살과 현상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호모, 레즈비언 등 동성의 결합을 결혼으로 간주하는 경향, 단독생활자, 가족의 생활자의 등 종전의 가족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현상도 추가되고, 합법적 결혼내에서도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러한 제반상황은 가족의 위기로서 인식되기에 이르고 있다(森岡, 望月, 1989: 134, Gittins, 1986: 155-168).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을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보는 관점은 위기로서 인식하는 관점과는 달리 산업화의 고도화가 초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핵가족의 형태를 넘어서는 다양한 가구 유형이 등장하는 가족해체의 현상이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후기 산업사회의 여러 특성들이 기존의 부부중심적 핵가족의 이념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기든스, 1997; 울리히 벡, 1999; 박숙자 외 편역, 1995).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화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다루는 거시적인 연구들이 그려내는 그림에 따르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해체, 가족의 다양화는 산업화와 산업화의 고도화가 물고 오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핵가족적인 가족 모델은 여러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해체의 압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2) 경제위기와 가족생활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변화가 초래한 가족해체의 압력과는 달리, 경제적 위기 시점에 개별 가족이 경험하는 가족해체의 압력에 대해서는 1970-80년대의 세계적인 불황기 이후 많은 연구들이 누적되고 있다. 연구의 주된 축은 가족의 경제적 형편(남편이나

아내의 취업이나 실직, 수입의 증감)이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의 만족도, 혹은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복지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이지만(Fox and Chancey, 1998),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연구자의 관심과 분과학문의 속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가족의 경제적 형편의 변화가 가족의 삶에 주는 영향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에서 상당히 수렴하는 하나의 결론은 가족원의 실업(특히 주부양자의 실업)은 실업자 가족원 또는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 모델보다는 다툼과 적대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고, 가족간의 응집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Larson, 1984 ; Voydanoff, 1990). 남편이 실직한 가정의 해체율이 높다는 연구(Lampard, 1994)가 있는가 하면, 실직가족은 취업가족에 비해 의사소통 수준이 낮다는 연구도 있다(Larson, 1984 외; 임인숙, 1999:75). 그러나 응집력이 떨어지거나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자체의 효과로 보는 입장(Kessler, Turner, and House, 1988)과 소득 감소 자체보다는 일의 상실에서 오는 정체성의 위기와 심리적 곤란이라고 보는 입장(Jahoda, 1982)이 공존하는데 이것은 연구대상 계층이 수입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노동자 계층인지 아닌지에 의해 또는 연구자의 관심이 실업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고려하는가의 여부에 의해 달라지는 것 같다.

한편 남편이나 아내의 실업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지만 그 정도나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 어떤 연구들은 실업자 가족에서 취업가족보다 폭력행동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면서, 이는 실업이 가족간의 상호지원적인 행동의 감소를 이끌고 오기 때문으로 해석한다(Fragon 외, 1983; 김혜선, 1999 등).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실업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빠지는 문제가 바로 가족의 응집력을 떨어뜨리는 궁극적인 요인이라는 데 대해 반대한다(Perrucci and Trag, 1988). 실업 가족에서 가족간의 응집력이나 결혼만족도가 낮고 심한 경우 가족해체에 이르는 것은 경제적 곤란이 직접 초래한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문제가 평소 가족관계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고 표출하게 하는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관련하여 여성주의 연구자들이나 사회심리학자들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있어온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결혼생활만족도가 경제적 곤란 자체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임을 지적한다(Kessler and McRae, 1982; 박종현, 1999; 장혜경·김영란,

1998).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볼 때 실직이라는 생활사적 사건은 가족관계나 실업자 당사자의 정서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간의 갈등을 심화되는 정도나 특히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대응행동을 촉발하는가의 여부는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곤경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부부관계의 질이나 가족생활의 만족도가 갈등을 극복하는 자원이나 제약요인임을 이 연구들은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3) 경제위기가 성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앞서와 같은 경제위기가 가족에 미친 효과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에 비해 경제위기가 성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적다. 주로 여성이나 가족사회학자들의 역사적 기술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는 것이 경제위기 시기의 성별관계의 변화인데 대표적인 논자는 소콜로프, 실라 로보탐(Rowbotham, 1992)과 스테파니 쿤츠(Coontz, 1992)이다.

소콜로프는 초기 산업자본주의로부터 후기 산업자본주의의 필요가 달라졌다는 점이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다가 여성의 취업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드는 변화의 원동력임을 지적한다. 소콜로프에 따르면, 서구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노동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신의 정도는 약화되고 취업이 본격화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자본의 필요에 입각한 것이었다. 즉 자본은 임금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가계의 구매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성을 시간제 노동자로 고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남성홀벌이 모델에서 맞벌이 모델로 이행해 갔다는 것이다. 소콜로프의 관점에서 경제위기는 가정경제가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적응하도록 하는 계기로 평가된다(소콜로프, 1990). 실라 로보탐은 여성운동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자본주의적 축적의 기복이 페미니즘과 젠더질서에 영향을 주었음을 주목한다. 로보탐은 소콜로프와 같이 자본의 입장에서 여성노동시장을 분석하지는 않지만 경제불황이 여성들의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같은 논지의 이야기를 한다. 즉 1970-80년대의 세계적 불황은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적 재편과정으로 이 기간동안 남성들에게 가족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가 소멸함에 따라 기존의 젠더질서는 해체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Rowbotham, 1992).

스테파니 쿤츠의 미국 가족의 변화에 대한 책에서는 이 문제가 보다 엄밀하게 논의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1970-80년대 기간동안 미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

했고 가족임금은 다소간 향상되었다. 이 간격을 메운 것이 여성들의 취업증대였다. 즉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동안 남성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아내들의 취업이 불가피해지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보편화된 사회로 이행했다는 것이다(Coontz, 1992).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경제위기는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하락시키면서 보다 싼 여성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경향을 초래하며, 실업과 임금하락의 두 측면에서 가족임금벌이를 하는 남성노동자 계층의 수를 감소시켜서 여성취업을 증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성별임금차이가 축소되고, 기혼여성의 취업이 필수적이 되는 상황은 종전까지의 성분업구도를 재편하는 주된 동인이 된다.

3. 자료 및 연구방법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으로 하여 1001명의 여성을 직접면접의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실업여성에 대해서는 오버샘플링(over-sampling)을 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서울시 26개 구별, 연령대별, 직업별 모집단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전체 표본의 수를 배정하여 면접원이 해당지역에서 배정받은 수 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선정하여 면접하는 방식인 비례할당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인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들과 인구학적 배경변수들 이외에 가족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1) 다른 가족의 실직 또는 취업에 관한 사항, (2) 생활비와 저축, 빚 등 가계경제에 관한 질문, (3) IMF 이후 경험한 경제적 곤란에 관한 질문, (4) 성 역할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에 관한 질문, (5) IMF 시기에 경험한 친지간 상호부조에 관한 질문

본 조사의 결과,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는 325명으로 32.5%였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하여 133명, 비경제활동인구가 281명이었다. 실업자는 의도적으로 over-sample 하였으므로 모두 262명이 포함되었다. 보다 자세한 응답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활	합계
연령	10대	27 (8.3)	0 (.00)	15 (5.7)	1 (0.4)	43
	20대	123 (37.8)	25 (18.8)	78 (29.8)	94 (33.5)	320
	30대	74 (22.8)	42 (31.6)	68 (26.0)	69 (24.6)	253
	40대	55 (16.9)	28 (21.1)	53 (20.2)	49 (17.4)	185
	50대	35 (10.8)	31 (23.3)	32 (12.2)	43 (15.3)	141
	60대	11 (3.4)	7 (5.3)	16 (6.1)	25 (8.9)	59
혼인상태	미혼	109 (33.5)	8 (6.0)	44 (16.8)	1 (.4)	162
	기혼	201 (61.8)	118 (88.7)	202 (77.1)	263 (93.6)	784
	이혼	5 (1.5)	1 (.8)	2 (.8)	1 (.4)	9
	사별	1 (3.1)	6 (4.5)	14 (5.3)	16 (5.7)	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5 (13.8)	37 (27.8)	42 (16.0)	56 (19.9)	180
	고등학교	197 (60.6)	69 (51.9)	158 (60.3)	161 (57.2)	585
	전문대 이상	83 (25.5)	27 (20.3)	62 (23.7)	64 (22.8)	236
자녀	있다	191 (58.8)	118 (88.7)	209 (79.8)	267 (95.0)	785
	없다	25 (7.7)	7 (5.3)	9 (3.4)	13 (4.6)	54
	무응답	109 (33.5)	8 (6.0)	44 (16.8)	1 (0.4)	162
남편 학력	중학교 이하	45 (1.8)	21 (1.5)	33 (1.1)	19 (0.7)	118
	고등학교	152 (46.8)	43 (32.3)	109 (41.6)	108 (38.4)	412
	전문대 이상	104 (3.7)	56 (3.0)	99 (2.7)	136 (6.0)	395
	무응답	24 (7.4)	13 (9.8)	21 (8.0)	18 (6.4)	76
가구 월평균 소득	0-49 (만원)	55 (16.9)	29 (21.8)	47 (17.9)	39 (13.9)	170
	50-99	22 (6.8)	7 (5.3)	16 (6.1)	9 (3.2)	54
	100-149	73 (22.5)	18 (13.5)	48 (18.3)	51 (18.1)	190
	150-199	65 (20.0)	19 (14.3)	57 (21.8)	75 (26.7)	216
	200 이상	110 (33.8)	60 (45.1)	94 (35.9)	107 (38.1)	371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270 (83.1)	106 (79.6)	215 (82.0)	244 (86.8)	835
	비취업	40 (12.3)	20 (15.1)	31 (11.9)	20 (7.2)	111
	무응답	15 (4.6)	7 (5.3)	16 (6.1)	17 (6.0)	55
전 체		325 (100.0)	133 (100.0)	262 (100.0)	281 (100.0)	1,001

II.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앞서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본 것처럼 경제위기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가족원의 실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실업이라는 사건은 많은 가족에서 가족적 삶의 경제적 기초를 불안정하게 하고 생활상의 곤란을 불러일으키며, 가족원의 역할행동에 변화를 초래하면서 가족적 삶의 응집력을 훼손한다고 한다. 또한 가족간의 유대의 파괴와 역할갈등의 심화는 가정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이었다. 이 절에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1997년 말의 경제위기가 한국가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위기로 인한 소비지출의 변화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를 검토하며, 다음으로 경제위기가 가족간 응집력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기로 한다.

1. 경제위기 후 생활수준의 변화

이번 조사에서도 경제위기 후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은 특히 집안에 실직이 있는 경우에 두드러졌다(생활상태가 아주 나빠진 경우, 28.7%, 실직자가 없는 가족은 10.4%). 응답자가 실직인 경우에도 아닌 경우에 비해 생활상태가 나빠졌다고 대답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자신이 서민층이라고 생각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층일수록, 생활수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가 IMF 이후 생활수준의 변화를 분석의 기준이 되는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고 집단을 나누어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데 비해, 〈표 3〉은 응답자의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소득 등 배우자 특성, 가구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생활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때 각각의 계수는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수의 효과는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분석모형은 '많이 나아졌다'와 '조금 나아졌다,' '그대로이다'를 하나의 범주로 보고 '조금 힘들어졌다'와 '많이 나빠졌다'를 하나의 범주로 보아 logit 분석을 행하였다. 각각의 계수가 나타내는 의미는 각 변

〈표 2〉 경제위기 후 생활수준 변화

	가구원 실직자		주관적 계층의식			편모여부	
	있다	없다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편모	양모
많이 나아졌다	1.1(2)	0.4(3)	-	0.4(1)	0.5(4)	-	0.6(5)
조금 나아졌다	2.2(4)	3.2(26)	-	3.8(9)	2.8(21)	-	3.0(27)
그대로이다	17.1(31)	98.6(312)	100.0(2)	54.9(130)	28.2(210)	40.5(15)	35.0(315)
조금 힘들다	50.8(92)	47.5(384)	-	36.7(87)	51.7(385)	45.9(17)	48.8(439)
나빠졌다	28.7(52)	10.4(84)	-	4.2(10)	16.8(125)	13.5(5)	12.6(113)
Mean	-1.04	-.64	.00	-.41	-.81	-.73	-.70
t(value)	42.378 (.000)		28.683 (.000)			.062 (.803)	

〈표 2〉 경제위기 후 생활수준 변화(계속)

	응답자 경제활동			소득수준			총계
	취업	실업	비경활	0-100	100-200	200이상	
많이 나아졌다	0.7(3)	0.4(1)	0.4(1)	0.9(3)	0.3(1)	0.4(1)	0.5(5)
조금 나아졌다	3.3(15)	1.9(5)	3.6(10)	2.5(8)	2.6(9)	3.8(10)	3.0(30)
그대로이다	35.8(162)	30.4(78)	36.8(103)	29.0(93)	33.5(118)	43.1(113)	34.6(343)
조금 힘들다	48.3(219)	48.2(124)	47.5(133)	49.8(16.0)	49.1(173)	44.7(117)	48.1(476)
나빠졌다	11.9(54)	19.1(49)	11.8(33)	17.8(57)	14.5(51)	8.0(21)	13.7(136)
Mean	-.68	-.84	-.67	-.81	-.75	-.56	-.73
t(value)	4.531 (.011)			8.507 (.000)			

수의 기준이 되는 집단과 비교할 때, 각 집단이 IMF 이후 생활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분석 모형은 IMF 이후에 느끼는 생활수준의 변화를 비교적 잘 설명하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따르면,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나빠졌다고 느꼈다. 또한, 배우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 중에 실직자가 있을수록, 그리고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라 서민층이라고 느끼고 있는 경우일수록 IMF 이후 생활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생활수준의 변화 의식에 대한 logit 분석 결과

변수명	logit (나빠지지않음/나빠짐) S.E
상수항	-1.18(0.21)***
연령 (50대)	
20대	0.10(0.17)
30대	-0.06(0.14)
40대	0.06(0.16)
교육수준(전문이상)	
고졸미만	-0.11(0.19)
고졸	0.21(0.11)*
혼인상태 (기혼)	
미혼	-0.46(0.16)**
자녀수(2명 이상)	
0명	0.54(0.18)**
1명	0.01(0.14)
미취학 자녀수(2명 이상)	
0명	0.05(0.15)
1명	-0.16(0.14)
경제활동 (비경활)	
취업	-0.02(0.11)
실업	-0.12(0.11)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고졸미만	-0.34(0.16)*
고졸	-0.03(0.11)
소득 (만원)	0.00(0.00)**
실직여부 (가구원 실직 없음)	
가구원 실직 있음	-0.36(0.11)***
계층의식 (서민층)	
상. 중산층	-0.46(0.08)***
-2 log likelihood	1,196.9091
X ²	1,032.26
df	843
p-value	0.0000

〈표 4〉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

(단위: 명)

		IMF 이전		
		서민층	중산층	상류층
IMF 이후	서민층	676	75	1
	중산층	8	232	1
	상류층	0	1	1

이러한 상황은 경제위기 이전과 후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전에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 많은 부분이 경제위기 후 서민층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가족은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러한 생활수준의 하락은 실업자가 발생한 가족이나 저소득계층에서 더 심화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가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이는 실업이나 경제위기가 가족간의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계층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한편 주관적 계층의식에 있어서 IMF 경제위기는 중산층의 수자를 줄이고 서민층의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음을 본다. 그러면 경제위기가 가족의 삶에 미친 경제적인 영향을 기반으로 가족간의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기로 한다.

2. 가족간의 응집력의 변화

이 번 조사자료는 경제위기 이후 가족간의 결속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다섯 개의 조사문항을 통해 평가한다.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로 남편과 상의하는 빈도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부부싸움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가정폭력의 유무,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의 유무, 아동에 대한 폭력의 유무가 그것이다.

경제위기 후에 집안 일을 남편과 상의하는 일이 늘어난 경우(34.9%)가 줄어든 가족(3.6%)보다 많았고, 부부싸움도 늘어난 경우(11.6%)가 줄어든 가족(6.9%)보다 많아서, 전반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 간의 접촉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원 중 실직자가 있는 경우(남편과 상의하는

빈도가 늘어난 경우 42.8%, 부부싸움이 늘어난 경우 17.4%)에서 실직자가 없는 경우 (각각 33.3%와 10.4%)에서보다 두드러지며, 응답자가 실업일 경우(41.6%, 14.9%)에서 취업(35.7%, 13.2%)이나 비경제활동의 경우(28.9%, 7.2%) 보다 부부간의 상의 및 싸움의 빈도가 높아진 경향이 두드러져서, 경제위기의 효과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접촉의 빈도는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서민층일수록 높게 나타나서, 간접적으로 경제위기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흥미로운 현상은 실직자가 있는 가족과 실업상태의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남편과 상의빈도와 부부싸움이 줄었다고 느낀 경우도 또한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많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라고 대답한 비율이 그러한 가족에서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은 가족에서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많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5〉 참조).

〈표 5〉 경제위기와 가족관계 변화

	가구원 실직 여부		응답자 경제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유	무	취업	실업	비경활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남편								
과								
상의								
줄었다								
χ^2	6.35(p=.042, df=2)		11.26 (p=.024, df=4)			20.47 (p=.000, df=4)		
부부								
싸움								
줄었다								
χ^2	5.63(p=.060, df=2)		9.32(p=.054, df=4)			29.04(p=.000, df=4)		
가정내								
폭력								
없다								
χ^2	.77 (p=.179, df=1)		4.23 (p=.120, df=2)			.89 (p=.641, df=2)		
이혼								
고려								
없다								
χ^2	.420 (p=.517, df=1)		3.14 (p=.08, df=2)			3.82 (p=.148, df=2)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8)	(646)	(319)	(202)	(263)	(2)	(183)	(594)

〈표 5〉 경제위기와 가족관계 변화(계속)

	소득구분			총 계	
	0-100	100-200	200이상		
남편					
과					
상의					
	늘었다	40.2(88)	33.8(104)	32.9(72)	34.9(274)
	그대로	56.6(124)	63.0(194)	63.0(138)	61.5(482)
	줄었다	3.2(7)	3.2(10)	4.1(9)	3.6(28)
	X ²	3.419 (.490 df=4)			
부부					
싸움					
	늘었다	15.1(33)	11.7(36)	7.3(16)	11.6(91)
	그대로	78.1(171)	83.1(256)	84.0(184)	81.5(639)
	줄었다	6.8(15)	5.2(16)	8.7(19)	6.9(54)
	X ²	8.720 (0.068 df=4)			
가정내					
폭력					
	있다	3.7(8)	2.3(7)	1.4(3)	2.6(20)
	없다	96.3(211)	97.7(301)	98.6(216)	97.4(764)
	X ²	2.468 (.291 df=.291)			
이혼					
고려					
	있다	4.6(10)	5.5(17)	0.9(2)	4.1(32)
	없다	95.4(209)	94.5(291)	99.1(217)	95.9(752)
	X ²	7.651 (.022 df=2)			
총	계	100.0	100.0	100.0	100.0
		(219)	(308)	(219)	(784)

경제위기는 가족 내 폭력과 해체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후 부부간의 폭력(2.6%) 및 자식에 대한 폭력(4.5%)이 있었다고 대답한 비율은 낮다. 경제위기 후 이혼을 고려했다고 대답한 비율도 4.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직자가 있는 가족이나 스스로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에서 이 가족폭력과 해체의 정도가 크다(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자녀에 대한 폭력의 경우에는 중요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인이 실직 상태에 있는 여성이 취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여성에 비해 경제위기 후 자녀를 심하게 때린 일이 있다고 말한 사람의 비율(7.7%)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가족에서 경제위기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낮추고 계층의식의 변동을 가져오지만,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족생활을

〈표 6〉 경제위기와 자녀에 대한 폭력

	가구원 실직 여부		응답자 경제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유	무	취업	실업	비경활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있다	4.8 (7)	4.4 (28)	3.6 (11)	7.7 (16)	3.0 (8)	-	1.7 (3)	5.3 (32)
없다	95.2(140)	95.6(610)	96.4(298)	92.3(193)	97.0(259)	100.0(2)	98.3(174)	94.7(569)
X ²	.04 (p=.843, df=1)		6.94 (p=.031, df=2)			4.30 (p=.117, df=2)		
총 계	100.0 (147)	100.0 (638)	100.0 (309)	100.0 (209)	100.0 (267)	100.0 (2)	100.0 (177)	100.0 (601)

〈표 6〉 경제위기와 자녀에 대한 폭력(계속)

	소득구분			총 계
	0-100	100-200	200이상	
있다	2.1(5)	5.7(17)	5.4(11)	4.5(35)
없다	97.9(237)	94.3(281)	94.6(194)	95.5(750)
X ²	4.762 (.092 df=2)			
총 계	100.0 (242)	100.0 (298)	100.0 (205)	100.0 (785)

불안정하고 응집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해체의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우리의 경우도 경제위기 후의 가족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전체적으로 가족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거나, 그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 폭력 및 해체의 정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들이 누적되고 있으며(김승권 외, 1998:20-23; 임인숙, 1999:82-86; 박종현, 1999:32-44), 본 조사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우리 가족에는 여전히 상당한 가족적 결속력이 남아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가족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도는 경제적 위기 이외에 위기에 선행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보완되어야 경제적 위기가 개별가족에 가지는 함의는 보다 분명하게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임은 분명한 것 같다.

III.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난 한국 가족의 특성

이 논문은 경제위기가 가족생활의 변화에 미친 영향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비로소 표출되는 우리 가족의 특성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경제가 그런대로 굴러갈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경제의 우선순위, 친족 관계의 의의, 그리고 친족간의 거리를 관련 조사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의 소비지출 행동의 우선 순위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저축액이 감소했고, (전 응답 가족 중 52.7%) 적금을 해약한 가족이 많았으며(34.9%), 빚이 늘고 빚의 상황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대답한 가족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사정의 위축이 가장 분명하게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비가 사용되는 품목에서 변화된 부분을 보면, 실직/취업 상태,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 가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문화, 여가활동 비용이다. (47.6%)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 여가활동이 가족생활의 핵심 부분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식비를 축소했다고 하는 가족이 그 다음으로 많지만, (41%) 그것은 물론 결식으로까지 가는 것은 아니므로, 식비 자체가 생활에서 주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병원에 가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것이 경제위기에서 생활비를 절감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23.2%) 이미 1998년의 한 조사는 실업 가족들이 병원에서 약국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고, 아예 질병 치료를 중단한 가구도 많다는 결과를 보고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1998:5). 사교육비의 축소도 중요하게 나타났다(20.3%). 경제위기에 나타난 지출의 감소 정도는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평상의 수준으로 올라가겠지만, 이러한 가사의 부분들이 평상시에 접하는 중요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이러한 지출의 감소 정도가 가족 중 실직이 있는 경우, 응답자가 취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인 경우보다 실직인 경우에, 편모가족인 경우에 체계적으로 높으며, 주관적 계층의식과 실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일수록 높다는 것이다. 경제적 조건이 소비행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경제위기 후 절감한 생활비 내용

	가구원 실직자		주관적 계층의식			편모여부	
	있다	없다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편모	양모
주택규모 축소	11.6(21)	5.2(43)	-	0.8(2)	8.2(62)	6.3(57)	5.3(2)
타가족과 기거	5.0(9)	1.8(15)	-	-	3.2(24)	2.2(20)	5.3(2)
식비축소	64.1(116)	35.9(294)	50.0(1)	18.7(45)	47.7(359)	40.3(366)	28.9(11)
자녀 결식	3.3(6)	1.2(10)	-	0.8(2)	1.7(13)	1.7(15)	2.6(1)
집에서 결식	2.8(5)	1.8(15)	-	1.2(3)	2.3(17)	1.8(16)	5.3(2)
문화활동 축소	61.9(1123)	44.4(364)	50.0(1)	39.8(96)	49.7(374)	47.7(433)	50.0(19)
출산계획 지연	3.9(7)	4.3(35)	-	1.7(4)	5.1(38)	4.3(39)	7.9(3)
임신중절 시행	1.1(2)	1.5(12)	-	1.7(4)	1.3(10)	1.3(12)	5.3(2)
자녀 학업중단	5.5(10)	2.9(24)	-	2.5(6)	3.7(28)	3.1(28)	10.5(4)
사교육비 감소	27.1(49)	18.8(154)	-	13.3(32)	22.5(169)	21.1(192)	10.5(4)
자녀결혼 연기	2.2(4)	2.0(16)	-	0.8(2)	2.4(18)	1.7(15)	2.6(1)
가족 분산	4.4(8)	1.6(13)	-	-	2.8(21)	2.2(20)	-
병원비 부담	39.8(72)	19.5(160)	-	6.2(15)	28.6(215)	22.4(203)	10.5(4)
적금해약	58.6(106)	29.6(243)	-	19.5(47)	39.9(300)	35.1(319)	28.9(11)
저축 감소	71.8(130)	48.5(398)	50.0(1)	38.2(92)	57.0(429)	52.9(480)	42.1(16)
빛 증가	30.4(55)	16.7(137)	-	6.2(15)	23.3(175)	19.3(175)	7.9(3)
빛상환 논란	37.0(67)	20.1(165)	-	10.0(24)	27.5(207)	23.7(215)	7.9(3)
총 계	100.0(181)	100.0(820)	100.0(2)	100.0(241)	100.0(752)	100.0(9.8)	100.0(38)

〈표 7〉 경제위기 후 절감한 생활비 내용(계속)

	응답자 경제활동			소득수준			총 계
	취업	실업	비경활	0-100	100-200	300이상	
주택규모 축소	7.9(36)	4.2(11)	6.0(17)	8.6(28)	5.6(20)	4.5(12)	6.4(64)
타가족과 기거	2.6(12)	2.3(6)	2.1(6)	2.8(9)	2.5(9)	2.3(6)	2.4(24)
식비축소	38.9(178)	44.3(116)	41.3(116)	45.2(147)	43.4(154)	34.0(90)	41.0(410)
자녀 결식	2.6(12)	0.8(2)	0.7(2)	2.2(7)	1.7(6)	0.8(2)	1.6(16)
집에서 결식	2.2(10)	2.7(7)	1.1(3)	3.1(10)	2.3(8)	0.8(2)	2.0(20)
문화활동 축소	44.1(202)	56.9(149)	44.5(125)	46.8(152)	51.8(184)	43.4(115)	47.6(476)
출산계획 지연	3.9(18)	3.8(10)	5.0(14)	4.9(16)	5.4(19)	2.3(6)	4.2(42)
임신중절 시행	0.9(4)	1.9(5)	1.8(5)	1.5(5)	2.0(7)	0.8(2)	1.4(14)

〈표 7〉 경제위기 후 절감한 생활비 내용(계속)

	응답자 경제활동			소득수준			총 계
	취업	실업	비경활	0-100	100-200	300이상	
자녀 학업중단	3.9(18)	3.8(10)	2.1(6)	4.3(14)	3.7(13)	2.3(6)	3.4(34)
사교육비 감소	20.1(92)	22.1(58)	18.9(53)	16.6(54)	25.1(89)	20.4(54)	20.3(203)
자녀결혼 연기	2.0(9)	2.7(7)	1.4(4)	2.2(7)	2.0(7)	1.9(5)	2.0(20)
가족 분산	2.2(10)	1.9(5)	2.1(6)	2.8(9)	2.5(9)	0.8(2)	2.1(21)
병원비 부담	22.7(104)	27.9(73)	19.6(55)	29.8(97)	24.8(88)	13.2(35)	23.2(232)
적금해약	33.8(155)	37.0(97)	34.5(97)	37.5(122)	37.2(132)	29.8(79)	34.9(349)
저축 감소	50.4(231)	59.2(155)	50.5(142)	52.9(172)	56.3(200)	46.8(124)	52.7(528)
빚 증가	19.0(87)	23.3(61)	15.7(44)	22.5(73)	19.2(68)	14.7(39)	19.2(192)
빚상환 곤란	22.7(104)	26.7(70)	20.6(58)	24.9(81)	23.9(85)	21.1(56)	23.2(232)
총 계	100.0(458)	100.0(262)	100.0(281)	100.0(325)	100.0(355)	100.0(265)	100.0(1001)

2. 경제위기가 드러난 친족간의 거리

사회복지 및 보험제도가 아직 저급한 상태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 친족관계가 그것을 대신할 자원으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잘 확인되고 있다. 서구사회에 비해 친족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경제위기에서 이 친족관계가 중요한 원조의 원천이 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98년의 한 조사는 실업가구의 생계비 보조가 국가의 공적 프로그램 (실업급여나 생활보호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비중보다 친지 및 이웃의 도움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998: 4) 친구나 다른 기관보다는 친족이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많고 그중에서도 형제, 자매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김승권 외, 1998: 76) 그러나 이에 관한 한 조사는(박종현, 1999: 22-26) 남편과 부인의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친족들로부터의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실직 등의 어려움은 친족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만든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친정부모, 시부모, 본인이나 남편의 형제를 비롯한 친족과 친구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13.4%, 이들에

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이 11.9%로 나타난다. 게다가 경제위기 전에 비해 도움을 주고 받은 일이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아서(각각 76.3%, 59%), 실제로 경제위기 후 친족, 친지간의 경제적 왕래는 늘어났다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직을 당한 가족의 경우, 친족 및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비율은 27%로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11.6%) 크게 높으며, 본인이 실직인 경우가 역시 취업 및 비경제활동의 여성으로 경제활동상태에 변화가 없는 사람에 비해 도움을 받은 비율이

〈표 8〉 친족 및 친지의 경제적 도움 여부

	가구원 실직 여부		주관적 계층의식		
	유	무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도움을 받았다	27.0 (41)	11.6 (80)	-	6.4 (12)	16.8 (108)
도움을 받지 않았다	73.0 (111)	88.4 (607)	100.0 (2)	93.6 (176)	83.2 (536)
X ²	32.86 (p=.000, df=1)		17.90 (p=.000, df=2)		
도움을 주었다	9.9 (15)	12.7 (87)	50.0 (1)	15.4 (29)	11.2 (72)
도움을 주지 않았다	90.1 (137)	87.3 (600)	50.0 (1)	84.6 (159)	88.8 (572)
X ²	.15 (p=.700, df=1)		3.74 (p=.154, df=2)		
총 계	100.0 (152)	100.0 (687)	100.0 (2)	100.0 (188)	100.0 (644)
받은도움 비교					
많이 늘어났다	25.6(10)	35.4(28)	-	9.1(1)	34.0(36)
조금 늘어났다	53.8(21)	39.2(31)	-	63.6(7)	42.5(45)
그대로이다	10.3(4)	20.3(16)	-	18.2(2)	17.0(18)
조금 줄었다	10.3(4)	5.1(4)	-	9.1(1)	6.6(7)
많이 줄었다	-	-	-	-	-
X ²	4.621(p=.202, df=3)		3.054(p=.383, df=3)		
총 계	100.0(39)	100.0(79)	-	100.0(11)	100.0(106)
준도움 비교					
많이 늘어났다	20.0(3)	16.5(14)	-	14.3(4)	18.3(13)
조금 늘어났다	40.0(6)	42.4(36)	100.0(1)	53.6(15)	36.6(26)
그대로이다	26.7(4)	30.6(26)	-	32.1(9)	29.6(21)
조금 줄었다	13.3(2)	7.1(6)	-	-	11.3(8)
많이 줄었다	-	3.5(3)	-	-	4.2(3)
X ²	1.332(p=.856, df=4)		7.386 (p=.496, df=8)		
총 계	100.0(15)	100.0(85)	100.0(1)	100.0(28)	100.0(71)

〈표 8〉 친족 및 친지의 경제적 도움 여부(계속)

	응답자 경제활동			소득수준			총 계
	취업	실업	비경활	0-100	100-200	200이상	
도움을 받았다	15.5(53)	17.4(38)	10.7(30)	16.5(42)	14.9(47)	9.2(21)	14.4(121)
도움을 받지않았다	84.5 (288)	82.6 (180)	89.3 (250)	83.5 (213)	85.1 (268)	90.8 (207)	85.6(718)
X^2	5.065 (.079, df=.079)			5.904 (.052, df=2)			
도움을 주었다	11.1(38)	12.4(27)	13.2(37)	9.4(24)	13.3(42)	13.6(31)	12.2(102)
도움을 주지않았다	88.9 (303)	87.6 (191)	86.8 (243)	90.6 (231)	86.7 (273)	86.4 (197)	87.8(737)
X^2	60.632 (.729, df=2)			2.650 (.266, df=2)			
총 계	100.0 (341)	100.0 (218)	100.0 (280)	100.0 (255)	100.0 (315)	100.0 (228)	100.0 (839)
받은도움 비교							
많이 늘어났다	35.3(18)	27.0(10)	33.3(10)	38.1(16)	26.7(12)	33.3(7)	32.2(38)
조금 늘어났다	43.1(22)	45.9(17)	43.3(13)	40.5(17)	48.9(22)	42.9(9)	44.1(52)
그대로이다	15.7(8)	18.9(7)	16.7(5)	14.3(6)	20.0(9)	19.0(4)	16.9(20)
조금 줄었다	5.9(3)	8.1(3)	6.7(2)	7.1(3)	4.4(2)	4.8(1)	6.8(8)
많이 줄었다	-	-	-	-	-	-	-
X^2	.806 (p=.992, df=6)			1.992 (p=.920, df=6)			
총 계	100.0 (51)	100.0 (37)	100.0 (30)	100.0 (42)	100.0 (45)	100.0 (21)	100.0 (118)
준도움 비교							
많이 늘어났다	11.1(4)	22.2(6)	18.9(7)	12.5(3)	21.4(9)	17.2(5)	17.0(17)
조금 늘어났다	41.7(15)	48.1(13)	37.8(14)	37.5(9)	35.7(15)	55.2(16)	42.0(42)
그대로이다	38.9(14)	18.5(5)	29.7(11)	25.0(6)	33.3(14)	24.1(7)	30.0(30)
조금 줄었다	2.8(1)	7.4(2)	13.5(5)	12.5(3)	9.5(4)	3.4(1)	8.0(8)
많이 줄었다	5.6(2)	3.7(1)	-	12.5(3)	-	-	3.0(3)
X^2	8.363 (p=.399, df=8)			13.299 (p=.102, df=8)			
총 계	100.0 (36)	100.0 (27)	100.0 (37)	100.0 (24)	100.0 (42)	100.0 (29)	100.0 (100)

유의미하게 높다. 이것은 친족의 상호부조 기능이 아직도 중요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득수준이나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은 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표 9〉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받은 친족 및 친지

	가구원 실직자		주관적 계층의식		
	있다	없다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도움받는 사람					
친정부모	43.8(21)	54.7(47)	-	30.8(4)	52.5(63)
시부모	29.2(14)	29.1(25)	-	46.2(6)	27.5(33)
본인·남편형제	25.0(12)	22.6(22)	-	23.1(3)	25.8(31)
친척	(6)12.5	5.8(5)	-	7.7(1)	8.3(10)
친구	4.2(2)	2.3(2)	-	7.7(1)	2.5(3)
응답자수	41	80	-	12	108
도움준 사람					
친정부모	15.0(3)	22.2(22)	-	18.2(6)	22.4(19)
시부모	40.0(8)	27.3(27)	-	-	-
본인·남편형제	40.0(8)	34.3(34)	-	18.2(6)	34.1(29)
친척	10.0(2)	16.2(16)	100.0(1)	45.5(15)	30.6(26)
친구	15.0(3)	8.1(8)	-	12.2(4)	8.2(7)
응답자수	15	87	1	29	72

〈표 9〉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받은 친족 및 친지 (계속)

	응답자 경제활동			소득수준			총 계
	취업	실업	비경활	0-100	100-200	200이상	
도움받는 사람							
친정부모	40.3(25)	52.4(22)	70.0(21)	54.0(27)	56.3(27)	40.0(10)	56.2(68)
시부모	24.2(15)	28.6(12)	40.0(12)	28.0(14)	39.6(19)	12.0(3)	32.2(39)
본인·남편형제	27.4(17)	30.9(13)	13.3(4)	22.0(11)	25.0(12)	32.0(8)	28.1(34)
친척	11.3(7)	9.5(4)	-	6.0(3)	8.3(4)	12.0(3)	9.1(11)
친구	4.8(3)	-	3.3(1)	6.0(3)	2.1(1)	-	3.3(4)
응답자수	53	38	30	42	47	21	121
도움준 사람							
친정부모	23.5(12)	12.9(4)	24.3(9)	18.8(6)	20.5(9)	12.7(7)	24.5(25)
시부모	25.5(13)	35.5(11)	29.7(11)	34.4(11)	38.6(17)	12.7(7)	34.3(35)
본인·남편형제	35.3(18)	35.5(11)	35.1(13)	28.1(9)	34.1(15)	25.5(14)	41.2(42)
친척	17.6(9)	16.1(5)	10.8(4)	18.8(6)	11.4(5)	12.7(7)	17.6(18)
친구	13.7(7)	3.2(1)	8.1(3)	6.3(2)	6.8(3)	7.3(4)	10.8(11)
응답자수	38	27	37	24	42	31	102

이렇게 우리 가족의 경우는 평소에 친족간의 상호부조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 경향은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친족관계망이 위기시 일차적인 경제적 지원집단이라면 친족집단 중 어떤 관계가 얼마만큼의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보자. 친족과 친구의 차이, 친족 중 어느 친족이 더 가까운가를, 경제위기에 도움이 오고간 상황에 따라 측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친구는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으로서 친절 및 시댁 식구는 물론 그외의 친척에 비해서도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 특히 본인이 실업인 경우 친구와의 왕래가 거의 없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친족의 의미가 아직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한 본 조사에서, 경제적 도움이 오고간 정도에 관한 문항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친정부모인데 비해, 자신이 도움을 베푼 사람으로는 남편의 형제나 시부모로 시댁쪽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중 실직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본인의 경제활동상태의 여하에 상관없이, 그리고 소득수준 및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이에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친절에서 도움을 받지만, 책임감은 시댁 쪽에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중요한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경제위기는 가족의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되, 우리 가족의 경우,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는 문화·여가활동과 외식비, 그리고 사교육비의 지출임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또 하나 이번 조사는, 일반가구보다는 편모가족에서 맞벌이부부보다는 홀벌이 가정에서, 중산층이상의 가정에서 보다는 저소득계층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소비지출행동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증대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실업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가 소득계층이나 가구원의 역할분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실업가정에 도움을 준 인간관계나 집단에 대한 조사문항을 분석해 볼 때 우리 가족은 위기시 친지나 이웃, 또는 국가와 같은 집단으로부터보다는 친족집단으로부터 일차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도 이번 조사연구의 결과 드러났다. 동아시아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는 비교문화연구의 차원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산업화가 상당히 진척된 오늘날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은 친족집단의 응집력이 완전히 와해되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Ⅳ. 경제위기와 성별관계

남편이나 아내의 실업이 가족관계나 가족생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남기는가라는 질문이 미시적인 가족변화에 초점을 둔다면, 경제위기 시기 동안 성별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질문은 보다 거시적인 역사변화를 조망한다. 이런 식의 거시적 역사변화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족사학자들이나 여성사가들이다. 이들은 미시적 가족변화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에 비해 요인들간의 인과관계 자체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역사 변화의 추세를 포착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시점은 1997년 말 경제위기의 발발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그런 식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도입해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일시적인 경기후퇴와는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이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이러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도입하여 우리의 경제위기가 가족생활, 특히 여성들의 삶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본 것처럼 경제위기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효과는 성별관계의 구도를 재편함에 의해서 발생한다. 즉 남성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하고 평균임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가 경제위기 이전보다 증가하며 이는 여성들의 취업동기를 강화하고 가사노동전담자로서의 역할에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족생활의 구도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다.

1997년말의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화이트칼라 계층의 실직자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연구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직한 남편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내의 취업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비록 화이트 칼라 계층의 30,40대 남성들의 의식 전반에 걸친 혁명적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남편의 실직은 현실적으로 아내의 취업을 불가피하게 하는 면이 있고, 취업한 아내를 대신하여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을 경험해 본 남편 가운데는 가사노동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다(장혜경·김영란, 1998).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의 변화는 더욱 혁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고회사인 동방커뮤니케이션즈와 패션교양지 '마리끌레르'가 최근 20대 여성 24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0.4%가 '여성도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맞벌이를 할 경우 아침밥준비를 '반드시 여자가 할 필요가 없다'는 데 대해 70.3%의 응답자가, '아내가 능력이 있으면, 남편이 외조를 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51.1%의 응답자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0년 10월 31일자 신문기사 참조). 이러한 응답비율을 통해 볼 때 20대 여성들은 더 이상 "바깥 일은 남편이, 가사는 아내가"라는 전통적인 성역할분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단기적인 회복국면을 경과한 이후 다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2000년 하반기 시점에서 주부들의 취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3.4분기의 취업실태를 보면, 여성의 취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2%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부는 전체 여성취업자의 43.9%를 기록, 지난해에 비해 43.9%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일보, 2000년 11월 1일자 신문기사 참조). 비록 이러한 주부취업이 주로 단순노무직의 하위취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남편의 실직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주부들의 취업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가 의존하고 있는 조사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주부의 취업동기가 어떻게 강화되고, 가족생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문항은 없었다. 그러나 실직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비교를 통해 경제위기가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취업의 동기와 형태, 취업의 조건 등에 있어서 경제외적인 요소보다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면 이는 여성들의 취업동기는 강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경제위기의 시점에서, 취업 및 실업의 동기(이유), 취업조건 등의 면에서, 주로 실업이 있는 가족, 본인 자신이 실업인 경우 등을 그렇지 않은 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봄으로서, 여성의 역할갈등이 경제적 조건에 따라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가를 드러내 주었다.

아래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로 여성들에게 있어서 취업의 주요 동기는 여전히 수입보다는 일 자체에서 오는 만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 동기가 수입인 경우는 16.1%인데 비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38.2%, 일이 재미있고 좋아서 26.5%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가족 중 실직자가 없는 가족, 주관적 계층의식이 서민층보다는 중산층,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층에서 그렇지 않은 층에 비해 확실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래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일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도 물론 보수가 적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지만, 일 자체에 대한 불만족이, 가족 중 실직이 없는 여

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서민층보다는 중산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실적이 있는 가정에서, 주관적 계층의식면에서 중산층보다는 서민층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의 취업에서 경제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요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는 실업을 강화하며,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서민층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하향조정한다고 볼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경제위기는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서 경제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여성의 취업동기

	가구원 실직자		주관적 계층의식			편모여부	
	있다	없다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편모	양모
수입이 좋은 편 일하는 시간대	9.5(4)	17.4(36)	-	18.3(13)	15.3(27)	35.7(5)	15.3(34)
알아서 할 수 있는 일 재미있고 좋아서	33.3(14)	23.2(48)	-	15.5(11)	29.0(51)	7.1(1)	26.6(59)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구직어려움	33.3(14)	39.1(81)	-	47.9(34)	34.1(60)	42.9(6)	36.9(82)
	19.0(8)	28.1(58)	-	26.8(19)	26.1(46)	35.7(5)	27.0(60)
	9.5(4)	15.5(32)	-	16.9(12)	13.1(23)	21.4(3)	14.9(33)
	23.8(10)	16.9(35)	-	14.1(10)	19.9(35)	-	18.5(41)
응답자수	42	207	-	71	176	14	222

〈표 10〉 여성의 취업동기 (계속)

	응답자 경제활동			소득수준			총 계
	취업	실업	비경활	0-100	100-200	200이상	
수입이 좋은 편 일하는 시간대	16.1 (40)	-	-	12.9(8)	10.0(7)	22.9(22)	16.1 (40)
알아서 할 수 있는 일 재미있고 좋아서	24.9 (62)	-	-	14.5(9)	32.9(23)	27.1(26)	24.9 (62)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구직어려움	38.2 (95)	-	-	35.5(22)	30.0(21)	41.7(40)	38.2 (95)
	26.5 (66)	-	-	29.0(18)	18.6(13)	28.1(27)	26.5 (66)
	14.5 (36)	-	-	14.5(9)	17.1(12)	9.4(9)	14.5 (36)
	18.1 (45)	-	-	16.1(10)	24.3(17)	14.6(14)	18.1 (45)
응답자수	249	-	-	62	70	96	249

〈표 11〉 여성의 미취업 원인

	가구원 실직자		주관적 계층의식			편모여부	
	있다	없다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편모	양모
보수가 적어서	50.0(6)	43.5(20)	-	45.5(5)	46.7(21)	42.9(3)	45.1(23)
시간대가 안 맞아서	8.3(1)	2.2(1)	-	9.1(1)	-	14.3(1)	2.0(1)
종일 일할 형편이안돼서		6.5(3)	-	9.1(1)	4.4(2)	-	5.9(3)
내 사업이 아니라서	8.3(1)	4.3(2)	-	-	6.7(3)	-	5.9(3)
힘들고 어려워서	8.3(1)	28.3(13)	-	18.2(2)	26.7(12)	14.3(1)	25.5(13)
안 맞는 것 같아서	16.7(2)	32.6(15)	-	36.4(4)	26.7(12)	14.3(1)	31.4(16)
분위기가 안 맞아서		15.2(7)	-	27.3(3)	8.9(4)		13.7(7)
응답자수	12	46	-	11	45	7	51

〈표 11〉 여성의 미취업 원인 (계속)

	응답자 경제활동			소득수준			총 계
	취업	실업	비경활	0-100	100-200	200이상	
보수가 적어서	40.0 (26)	-	-	53.3(8)	63.2(12)	30.0(6)	40.0 (26)
시간대가 안 맞아서	3.1 (2)	-	-	-	5.3(1)	-	3.1 (2)
종일 일할 형편이안돼서	4.6 (3)	-	-	-	5.3(1)	10.0(2)	4.6 (3)
내 사업이 아니라서	4.6 (3)	-	-	6.7(1)	-	10.0(2)	4.6 (3)
힘들고 어려워서	21.5 (14)	-	-	20.0(3)	21.1(4)	30.0(6)	21.5 (14)
안 맞는 것 같아서	27.7 (18)	-	-	40.0(6)	31.6(6)	30.0(6)	27.7 (18)
분위기가 안 맞아서	10.8 (7)	-	-	13.3(2)	5.3(1)	20.0(4)	10.8 (7)
응답자수	65	-	-	15	19	20	65

비록 현재 시점이 IMF 경제위기가 발발한 시점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의 한국 가족의 삶에서 기존의 성별분업구도가 어느 정도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소한 관련자료나 우리 조사연구가 암시하는 바, 그리고 통계자료들의 추이를 고찰해볼 때, 기존의 확고한 성별분업의 구도는 이제 장기적인 불황국면을 맞이하여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경제위기는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실업이 생긴 가족들은 가족관계에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부부 간의 접촉빈도가 높아졌다. 부부간의 폭력이나 해체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자녀에 대한 폭력이 이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사회적 보장제도나 친구에 비해서 친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지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친정이 도움의 자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존의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들과 다소 다른 것들이므로, 우리사회를 해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소비변화를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문화비용과, 병원비, 그리고 사교육비가 지출의 신축성을 가진 부분인 것이 드러났다. 또한 여성의 취업에서 경제위기는 경제적 요소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음을 보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이러한 경제적 요인의 증가는 기존의 성별구도에 대한 해체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도 살펴 보았다.

참고문헌

- 기든스(권기돈 역)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 김승권 외 (1998), 《여성실업자 및 실업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여성특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선 (1999), “경제위기와 가정폭력,” 서울특별시.한국여성학회 공동심포지움, 《경제위기와 여성》.
- 박숙자 외 편역 (1995), 《가족과 성의 사회학》 (나남).
- 박종현 (1999), 《한국사회 중산층 가족의 가장 실적에 따른 적응과 갈등》,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논문.
- 쏘콜로프(이효재 역) (1990), 《여성노동시장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백, 율리히(배은경 외 공역)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 임인숙(1999), “실업과 가족 불안정,” 서울특별시.한국여성학회 공동심포지움, 《경제위기와 여성》.
- 장혜경, 김영란 (1998),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
- Aries, Philippe (1960), *Centuries of Childhood*, Middlessex: Penguin Books.
- Coontz, Stephanie (1992), *The Way We Never Were :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 Basic Books.
- Fragon, Jeffrey A. et al. (1983), “Violent Men or Violent Husband?: Background Factors and Situational Correlates,” *The Dark Side of Families*, Beverly Hills: Sage.
- Fox, G. L. and D. Chancey (1998), “Sources of Economic Distr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9.
- Gittins, Diana (1986), *The Family in Question : Changing Households & Familial Ideologies* : Macmillan.
- Gomel, Jessica N., Barbara J. Tinsley, Ross D. Parke, and Kathleen M. Clark (1998), “The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Family Relationships among African American, Latino, and Euro-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19.
- Goode, W.J. (1963),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 New York Free Press.
- Jahoda, Marie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ssler, R. C., J. B. Turner, J. S. House (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 Kessler Ronald and James A. McRae Jr (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 Lampard, Richard (1994),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Dissolution and Unemployment," in Duncan Gallie et al. (eds), *Social Change and the Experience of Unemployment* : Oxford University Press.
- Larson, Jeffrey H. (1984), "The Effect of Husband's Unemployment on Marital and Family Relations in Blue-collar Families," *Family Relations* 33.
- Laslett, Peter (1965), *The World We Have Lost*, New York: Scribners.
- Perruci, Carolyn and Dena B. Trag (1988), "Effect of a Plant Closing on Marriage and Family Life," *Families and Economic Di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Policy*, Newbery Park, CA: Sage.
- Rowbotham, Sheila (1992), *Women in Movement: Feminism and Social Action* : Routledge.
- Voydanoff, Patricia and Linda C. Mayka (eds) (1988), *Families and Economic Di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Policy*, Newbery Park, CA: Sage.
- Voydanoff, Patricia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利谷信義 (1987), 《家族と國家》.

飯田哲也 (1986), 《家族社會學の 既存問題》, シネルヴァ書房.

森岡清美, 望月暁 (1989), 《新しい家族社會學》, 培風館.

Economic Crisis and Family Life

Chin-Sung Chung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MF economic crisis on family live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of 1001 women in Seou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found the following changes that the economic crisis brought to the family lives. With the unemployment,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became more dense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While the possibility of violence and separat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was relatively low, violence against the children more directly reflects the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economic crisis, relatives are more important resources for supports than friend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Especially the families of the wives are the most important supporters. Through the changes of consumption pattern in economic crisis, we confirmed that the expenses for cultural activities, the hospitals and private education have some flexibility. That is, those expenses firstly decreased in the economic crisis. Confront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economic motivation of women to find works became stronger, and we saw some possibility of changes of women's role pattern by undergoing economic difficulties.

Key Words: crisis, family relations, social distance among relatives